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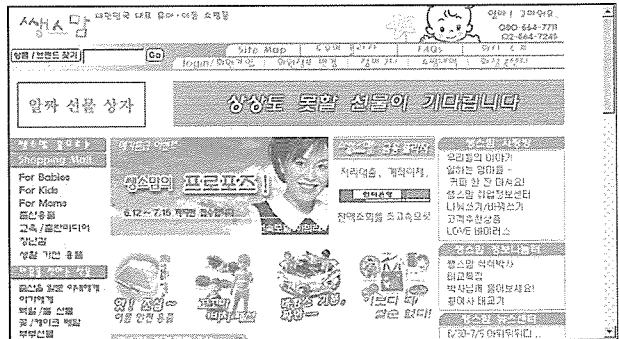
'세계 사이버게임대회' 내년 국내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올림픽이 국내에서 열린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게임리그 전문업체인 배틀탑(대표 이강민)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ICMM(대표 오유섭)과 '세계 사이버게임대회'를 추진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세계 사이버게임대회 조직위원회(가칭 ICOC)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마케팅 전담회사인 가칭 'ICM'을 설립기로 합의하고 실무조직 구성 및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2001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게 될 세계 사이버게임대회는 정기적인 게임대회 개최와 영화, 애니메이션 전시회 등이 포함되는 국제적인 엔터테인먼트 축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금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게임대회는 배틀탑이 그동안의 게임리그 운영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행사 운영 및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또 사이버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이벤트, 전시회 등의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세계 사이버게임대회 조직위원회 및 마케팅 전담회사인 ICM(International Cyber Marketing)에는 세계 저명인사와 해외의 우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단시일내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위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이버게임대회 개최는 각 국가별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국가대표들이 매년 지정된 개최지에 모여 종목별 우승자를 가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는 7개국에서 선발된 국가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서 프레올림픽 개념의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에 약 25개국이 참가하는 제 1회 세계 사이버게임대회를 개최한다. 또 사이버게임대회 기간중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이벤트, 전시회, 컨테스트 등도 병행한다. 사이버공간을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추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쌍스넷, 전자파차단 의류 판매

전자상거래 업체인 쌍스넷(대표 김찬웅 www.thanksnet.co.kr)은 임신·출산·육아 전문 쇼핑몰인 쌍스맘



(www.thanksmom.co.kr)을 개설하고 전자파차단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하는 의류는 임부복 '쌍스맘', 앞치마, 속옷세트 '엘로라' 등 세가지. 이는 전자파로부터 태아와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개발된 신개념 의류로, 특히 앞치마는 네티즌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전자파차단 의류는 쌍스넷이 지난해 9월 일반섬유에 순동을 특수처리해 전자파를 99.9%까지 차단할 수 있는 닥터론 섬유를 개발해 만든 제품이다. 유해 전자파로 인한 유산, 태아 기형, 인체 면역기능 파괴를 방지하며 일반 임부복과 같은 편리한 착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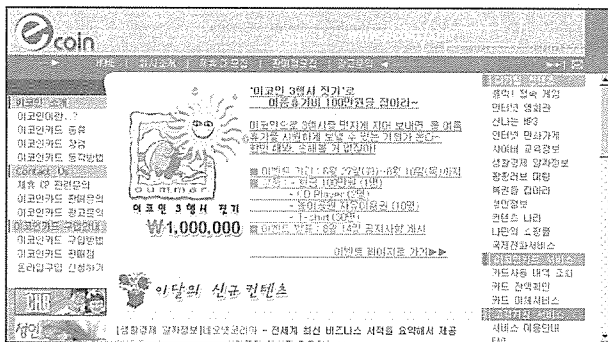
공과금, 전자화폐로 결제

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기반의 종합정보통신회사 (주)데이콤(사장 정규석)은 7월부터 자사가 개발한 전자화폐 Cyberpass를 이용해 인터넷(www.mybill.net)상에서 공공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용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몇몇 통신업체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자화폐(사이버머니) 시스템과 직접 연계해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국제전화 002, 천리안, 보라넷, 기업전화회선 등 자사의 서비스요금 결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여만명에 달하는 Cyberpass 가입고객들은 데이콤의 각종 서비스 요금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드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전자지불시스템 사용을 꺼리던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LG25시 등 편의점에서 사이버패스를 구입하거나 온라인(www.cyberpass.com)상에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데이콤의 공공요금 결제사이트인 www.mybill.net에 접속, 요금을 조회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된다.

이코인, 남북정상회담 기념 전자화폐 발행



소액 전자화폐 발행업체 이코인(대표 김대욱, www.ecoin.co.kr)이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이코인 인터넷화폐' 1만원권 총 2천장을 한정 발행했다. 한달동안 이코인과 네티앙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정상회담 기념 전자화폐의 수익금 전액은 컴퓨터를 구입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통일관련 NGO(비정부기구) 등에 기탁된다. 또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남한에 있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실향민 자녀에게 증정하거나 '이북5도 위원회' 등에 컴퓨터를 기증하는데 사용된다. 이밖에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1천원권 6천1백20장을 발행,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공헌한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 실향민의 가족 또는 이산가족, 통일 및 북한관련단체(NGO) 관계자, 동해항에서 금강산으로 떠나는 승선자, 인천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승선자 등에게 무상 증정했다. 이코인 관계자는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촌(中關村)과 중국 최대의 PC제조업체인 련상(聯想)그룹을 방문, 정보통신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인

터넷과 더불어 이코인 인터넷 화폐가 북한까지 확산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화폐는 상단에 양쪽 정상의 캐릭터가 한반도를 배경으로 두 손을 맞잡는 모습과 하단에는 두 정상의 캐릭터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화상 채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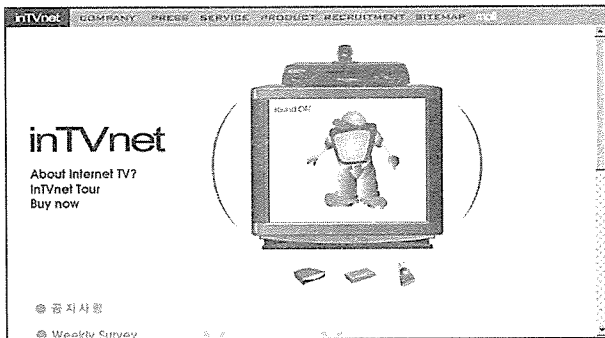
텔레워버족 증가

TV를 켜 놓은 채 자신의 PC로 서핑을 즐기는 '텔레워버(Telewebber)' 족이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말 2천7백만명이었던 텔레워버가 4천4백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말에는 5천2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PC로 TV나 비디오를 동시에 즐기는 미국의 성인들이 약 2백1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텔레워버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제조업체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텔레워버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서핑 습관 때문. 스파이더댄스의 CEO인 스티브 호프만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텔레워버들이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적인 장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파이더댄스는 PC에서 TV방송과 웹 콘텐츠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다. 양방향을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 부족도 텔레워버 양산에 한 몫을 했다.

데이터퀘스트의 수석분석가인 람나라안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TV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본 것을 양방향으로 구현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프로그래머와 광고업자들은 이들 제품에 양방향성을 구현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워버의 60%는 TV에서 본 물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광고에서 본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사람은 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4%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20%가 주문을 했던 것에 비해서 팔목할 만큼 늘어났다. 텔레워버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양방향성 프로그래밍을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하지만 급격한 사용방식의 변화를 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TV나 PC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만 이들을 움직일 수 있다. 특히 TV 시청 관행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데이터퀘스트 조사는 분석했다. 람나라안은 “처음에는 TV에서 시청자 조사나 상품 구매기능을 부여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의 양방향성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TV 뉴스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로 연결시켜 주거나,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V 홈뱅킹시대 열린다



인터넷 TV 서비스 업체인 인터넷TV네트웍스(대표 김명환 www.intvnet.com)는 외환·한빛은행과 ‘인터넷 TV 홈뱅킹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TV네트웍스는 자사의 인터넷 TV 서비스 가입자가 TV를 통해 홈뱅킹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은 TV를 통해 홈뱅킹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 인터넷 TV용 셋톱박스로 연결된 TV만 있으면 간단한 리모콘 조작만으로 입출금 내역조회, 계좌이체, 잔고조회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한편 외환은행에서는 홈뱅킹 시스템 도입과 관련, 홈뱅킹 이용자에게 ▲타행 이체 수수료 1년간 면제 ▲신용아파트 담보 대출 및 대출 가능 여부 즉시 확인 ▲연결 정기에금 금리최고 0.5%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TV네트웍스는 다수의 시중 은행들과도 인터넷TV 홈뱅킹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TV를 통

한 홈뱅킹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핑클, 게임에 등장

감마니아코리아(대표 조성용)는 인기 가수인 핑클을 자사의 ‘패스트푸드점’ 게임에 등장시키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은 대만 감마니아(대표 알버트류)에서 제작해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으로, 7월 중순 국내에도 발매될 예정이다. 감마니아는 대만의 여가수인 유키를 ‘편의점’ 게임 판매 전략에 이용해 성공한 바 있다. 감마니아코리아도 국내 인기 가수인 핑클이 등장하는 4종류의 ‘패스트푸드점’ 패키지를 준비중이다. 각각의 패키지에는 4명의 핑클 멤버가 등장할 예정. 감마니아 관계자는 “각각의 핑클 멤버가 등장하는 패키지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누가 가장 인기가 높은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니아코리아는 앞으로도 게임 홍보에 연예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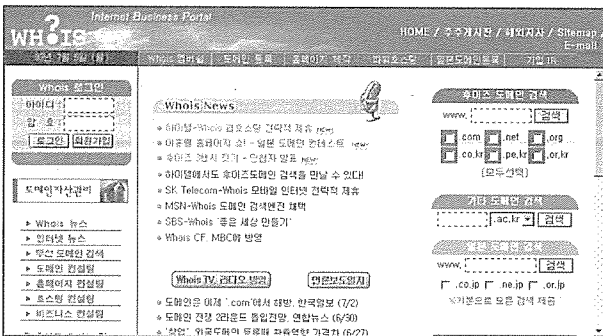
네티앙, 북한여행 정보 제공

네티앙은 휴가철을 맞아 네티즌들을 위한 여행 정보 사이트(www.travel.netian.com)를 개설하고 북한 여행 정보 등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네티앙 여행 정보 사이트는 ‘주문여행서비스’, ‘맞춤여행서비스’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으며 여행지, 일정, 출발인원, 숙소, 경비 등에 따라 네티즌 각자에 맞는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여행클리닉’ 코너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행 전문가에게 직접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 ‘영상여행’ 코너에서는 가보고 싶은 곳을 미리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북한 먹거리, 사찰, 유적지, 김일성 관련 지역 등 북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네티앙 여행캘린더를 사용해서 일별로 가볼 만한 곳을 확인할 수도 있다.

네티앙은 이밖에도 한번의 클릭으로 콘도, 항공권 등을 예약하고, 예약 금액의 1%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네티앙 여행정보의 콘텐츠는 ‘아이네띠앙 비즈(I-Netian biz)’의 회원사인 예카투어가 제공하

며 네티앙 회원들은 네티앙 로그인만으로 예카투어 회원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후이즈, 24시간 도메인 등록 서비스



후이즈(대표 이청중 www.whois.co.kr)는 '24시간 도메인 편의점' 개념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후이즈는 페이지뷰 분석 결과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관없이 꾸준한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착안, '24시간 도메인 편의점'을 도입했다. 24시간 풀 서비스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촌각을 다투는 좋은 도메인의 등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후이즈는 이밖에도 신청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등록이 가능한 도메인 등록 자동화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국제 도메인(.com/.net/.org) 등록 비용을 종전 3만3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인하했다. 후이즈측은 "24시간 도메인 편의점, 자동화 프로그램, 가격 인하 등 고객편의주의를 지향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AOL 내부직원 정보 해킹

미국 최대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직원 계정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EFE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해커들의 공격으로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OL 대변인은 "소수의 직원정보가 손상받거나 유출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며 "회사의 특별 보안수단을 동원해 이를 해결토록 했다"고 즉각 밝혔다. 이번 해킹은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에 전달된 이-메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숨겨놓는 방법(트로이목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커들이 회사 보안장벽을 뚫고 내부 네트워크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한 고위관리는 이같은 해킹을 통해 해커들이 일반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비롯해 개인신용카드번호 등이 담겨진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우누리, 성인포털사이트 개설

나우누리(대표 강창훈)가 국내 대형 인터넷업체로는 처음으로 성인포털사이트를 개설, 성인고객 잡기에 나섰다. 나우누리는 유료 성인포털사이트 '성인별곡'(adult.nownuri.net)을 정식으로 개설했다. '성인별곡'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하루 1천원~1천5백원이나 1분당 1백원(일부 서비스는 나우누리 회원만 이용 가능). 성인 인터넷방송, 성인용품 쇼핑몰 등 최근 크고 작은 성인 콘텐츠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유료 서비스를 개설했지만, 대형 인터넷 업체가 대형 성인전문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우누리의 '성인별곡'(성스러운 인간들이 별난 소리를 낸다는 뜻)사이트는 10여개 성인 콘텐츠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성인영화·성인방송·성인소설·성인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성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처음으로 성인 전용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유료회원 확보에 성공한 '엔터채널'과 계약해 성인전문 콘텐츠를 독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클리닉', '성인 웹진', '성인 전용 쇼핑몰'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 전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에로배우 팬클럽', '성인복권', '성인유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나우누리의 조용관 콘텐츠사업팀장은 "최근 업계 최대 이슈인 콘텐츠 유료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성인 콘텐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성인 사이트인 만큼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건전한 성인 사이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①